

# 아스카데라 절



아스카 대불



아스카데라 절 경내

## 이용 안내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아스카 682 +81-744-54-2126  
9:00~17:30(10월~3월에는 ~17:00) 4/7~9 휴무 300엔 긴테쓰 가시하라진구마에역 통쪽 출구에서 아카카메 버스(아스카 유람버스)를 타고 '아스카 다이부쓰마에'에서 하차하면 바로,

■ 공개 정보/식기대회상(경당)을 일반 공개(배관료 필요).

## 한반도에서 건너 온 불사(佛師) · 구라쓰쿠리노토리(安作止利)가 만든 아스카대불은 일본 최고(最古)의 불상

일본 최초의 본격적 기암으로 구성된 사원인 훗코지(아스카데라) 절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의하면, 587년에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가 건립을 발원하고 이듬해인 588년에 소가노우마코의 요청을 받아 백제에 불사(佛師) · 승려 · 사공(寺工) · 노반(露盤)박사 · 기와박사를 파견하여 596년에 소가 씨의 씨족사찰로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부터 완성까지 6년이라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제에서 파견된 각 분야 기술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기암 배치는 1층 3금당식이라고 해서, 탑의 동쪽, 서쪽, 북쪽에 3개의 금당을 배치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기암 배치는 고구려의 폐사(廢寺), 상오리 폐사, 정릉사, 신리의 황룡사지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완성 후, 고구려에서 도래한 혜자와 백제에서 도래한 혜종이 아스카데라에 들어가, 모두 삼보의 동량으로 불리는 등 불교 전파에 공헌하였습니다. 혜자는 우마야도노미코(\*戸皇子 · 소토쿠 태자)의 불교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스카데라의 본존인 동조석가여래좌상(통칭, 아스카 대불)은 7세기 초반 한반도에서 도래한 구라쓰쿠리노토리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 CHECK!

## 아스카 대불

순가락과 순가락 사이에 물길위가 있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한나지 절



대원사 다층석탑(한국 경주)

한나지의 십삼층석탑과 코스모스

## 경주 대원사의 다층석탑을 빼닮은 십삼층석탑과 코스모스의 절

나라시 북부에 자리한 한나지는 아스카시대에 고구려의 승려 혜관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80년의 난토야키우치(南都燒討)로 소실되었지만 부총되었고 그때 높이 약 14m의 십삼층석탑이 재건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십삼층석탑을 보면 경주의 사원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탑은 신라 진흥왕 시대에 건립된 경주 대원사에 있는 다층석탑과 무척 흡사합니다. 이 다층석탑은 높이 6.6m이며 불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자장사를 646년에 세운 것으로 가장 위층의 각 모서리에 풍경을 매달고 2층 석단 상부의 각 면에는 불상을 조각해 놓았습니다만 한나지 십삼층석탑에는 없습니다.

## MORE...

## 꽃의 절

코스모스와 황매화 등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의 절로도 유명합니다.

## ASUKA Folklore Museum 明日香民俗資料館

## 아스카 민속자료관

아스카무라의 역사를 소개하고 생활양식과 생활도구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병설된 마가미소(眞神莊)에서는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거북 모양 석조물의 해설 비디오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오카 +81-744-54-4577

## 아스카데라에서 도보 6분



## 사방극락정토도를 그린 당마 만다라로 유명한 절

7세기에 지어진 절로 1,000년 전에 세워진 2개의 삼층탑이 현존하는 일본 유일의 절입니다. 낙성법요 때는 백제의 혜관이 도사(導師)를 맡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사방극락정토도를 그린 '당마 만다라'로 유명하고 이 만다라는 주조히메(中將姫)가 연실을 이용하여 하룻밤 만에 완성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주조히메가 생을 마칠 때는 아미타여래와 25보살이 마중을 나와 주조히메는 관음의 연화좌를 타고 국락정토로 향했다고 합니다. 매년 5월 14일에 행해지는 연공양(縫供養)은 이 모습을 재현한 행사로 유명하며 무척 활성적입니다. 금당에 안치되어 있는 사천왕상은 7세기에 제작된 건칠상(乾漆像)으로 백제로부터 헌납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의 본존 미륵여래를 둘러싸듯이 북동쪽으로 다문천, 남동쪽으로 지국천, 남서쪽으로 증장천, 북서쪽으로 광목천이 각각 자리해 있어 사천왕상으로는 호류지에 있는 것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입니다. 사천왕은 원래 동서남북의 수호신입니다만 7세기의 사원들은 대부분 남쪽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사천왕은 실제의 방위에서 어긋나 수미단의 네 모퉁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다른 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CHECK!

## 레이호칸

8세기 경의 유물에서부터 근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보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다이마데라 절



사천왕상(지국천상)



다이마데라 절 경내

## 이용 안내

나라현 가쓰라기시 다이마 1263 +81-745-48-2001(다이마데라 나카노보)  
9:00~17:00 연중무휴 나카노보 배관, 가람 배관 각 500엔(평상시) 긴테쓰  
다이마데라역에서 도보 15분.

■ 공개 정보/사천왕상(금당)을 일반 공개(배관료 필요).

## Sumo Museum Kehayaza 相撲館 けや座

## 스모관 계하야자

스모의 발상지 가쓰라기시에 있으며 일본의 국기인 스모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모의 정식 시합장과 같은 크기의 씨름판이 있으며 자유롭게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외국인은 무료.)

나라현 가쓰라기시 다이마 83-1  
+81-745-48-4611

## 다이마데라에서 도보 13분



# 오카데라 절

봉선사의 종  
(한국 경주 국립박물관)

봉선사의 종 부조

덴닌몬센

## 한국 봉덕사의 에밀레종을 빼닮은 선녀 부조상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7세기에 덴무 천황의 황자인 구사카베 황자가 살던 오카노미야 궁터에 기엔 승정이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기엔 승정은 703년 승정에 임명되었고, 당시 불교계의 최고책임자이자 사회사업에서 활약한 교끼, 화엄종을 창시한 로번 등 많은 제자를 두었으며, 일본 법상종의 효시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존은 8세기의 여의륜관음좌상으로 높이 4.5m에 이르며 소상(塑像)으로는 일본 최대의 불상입니다. 또 유연한 모습의 선녀를 부조로 새긴 8세기의 덴닌몬센이라는 부조상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조상은 한국 성덕대왕신종(별칭, 에밀레종)에 새겨져 있는 부드러운 선녀 부조상과 흡사합니다. 성덕대왕신종은 신라 35대 경덕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왕을 위해 만들기 시작해, 771년, 다음 해공왕에 의해 완성된 대종입니다. 종을 만들 때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이 있어, 종을 칠때마다 '에밀레(어머니)'라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여 에밀레종이라고 합니다.

## MORE!

여의륜관음좌상  
도다이지 절의 대불, 하세데라 절의 십일면관 음보살과 함께 일본 3대 불상의 하나입니다.

## 이용 안내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오카 806 +81-744-54-2007 입산 8:00~17:00 연중무휴 300엔 긴테쓰 가시하라진구마에역 통쪽 출구에서 발차하는 버스를 타고 '오카데라'에서 하차하여 도보 5~10분.  
■ 공개 정보/여의륜관음좌상을 일반 공개(배관료 필요), 덴닌몬센은 복제품이며 실물은 교토 국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 INUKAI MANYO Memorial Hall 犬養万葉記念館

## 이누카이 만요 기념관

일본 최고(最古)의 시집 '만요슈(万葉集)' 와 관련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만요 풍토학을 제창한 이누카이 다카시의 기념관. 도서 약 8,000권(열람 가능)과 이누카이의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오카 1150  
+81-744-54-9300

## OKADERA에서 도보 10분

